

자율관리어업

& 수산소식

The Fisheries Newsletter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상호물산빌딩 A동 501호 Tel : 02)589-4604 Fax : 02)589-1500 www.korfish.or.kr

발행인 : 회장 김영규 ■ 기사·편집 : 자율관리팀

해양수산부 2018년 업무계획 수산부문 주요내용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어가소득 5,000만원 시대, 어촌 뉴딜300 사업 추진’

해양수산부는 1월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첫 업무보고를 했다.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관·차관과 일반국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 내용 중 수산분야의 주요 업무계획을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주>



해양수산부는 1월 18일 새해 첫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과 어가소득 5,000만원 시대 개막, 어촌 뉴딜300 사업 등 3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먼저 주력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 및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보고했다.

해양수산 창업 분야에서는 어업인 누구나 가입 가능하도록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월 100만원의 영어정착금, 500억원의 창업·주택자금을 지원하여 청년 귀어를 확대한다. 또한 150억원의 수산모태펀드를 확대하여 소자본 벤처·창업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갯벌·해조류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관광모델도 개발한다.

둘째, 어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어린명태 100만마리 방류 등으로 사라진 어종을 회복하고, 고부가가치 어종인

참다랑어의 상업적 출하도 시작한다.

대형어업지도선 4척 추가 투입해 중국 어선 불법조업을 강력히 단속하고, 골재 중 바다모래 비중을 지난해 11%에서 2022년까지 5%로 축소해 해양생태계를 보전한다.

고수의 품종인 김양식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스마트 양식단지를 조성한다.

김에 이어 어묵 등을 수출효자상품으로 육성하고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수출지원센터를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는 등 수출지원 인프라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적용범위를 현재 육지에서 8Km 이상 떨어진 도서에서 전(全) 도서로 확대하고,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세를 감면하는 한편, 어업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10만원(1일)으로 확대하고, 어촌 지역 가사도우미 제도도 신설한다.

셋째로는 ‘어촌 뉴딜300’ 사업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어촌도서주민 경제활동의 핵심시설이자 생활공간이나, 도로·철도·항만 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대형 SOC에

비해 낙후된 소규모 어항·포구를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재창조하는 ‘어촌 뉴딜300’ 방안을 마련한다.

개선이 필요한 300개의 소규모 어항·포구를 △해상교통시설 정비 △해양 재난사고 대응 △이용자 안전시설 보강 △어촌관광 수요창출 등 4가지 유형별로 선정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금년 상반기 중 지자체 및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어촌 뉴딜300 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2018년 첫 이사회 개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회장 김호연)는 1월 15일 경남 통영시 욕지수협에서 금년도 첫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올해 해외 선진지 견학 대상국 및 대의원 총회 개최일정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했다.

알림

자율관리어업 소식지 원고 모집

자율관리어업은 지난 2001년 실시된 이후 정부의 중요한 수산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참여의지 및 정보공유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자율관리어업과 관련하여 전국 어업인들에게 알리고 싶은 소식이나, 공동체 주요 활동사항, 성공사례 등을 보내 주시면 적극 소개하겠습니다. 공동체 어업인을 비롯한 자율관리어업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원고 모집 -

- 대상 : 자율관리어업 참여 어업인 및 관련단체, 지자체 업무담당자
- 내용 : 공동체 주요활동, 자율관리어업 성공사례 및 개선방안 등
- 마감 : 매월 10일

※ 문의 : 한국수산업회 자율관리팀(02-589-4604)

자율관리어업 내수면평가협의체 개최 예정

2월 하순경 내수면공동체 활동실적 평가

한국수산업회는 2월 하순경 자율관리어업 내수면평가협의체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내수면평가협의체 회의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15년부터 내수면공동체에 대한 평가 중 기준 수협평가를 내수면평가협의체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내수면평가는 △자율관리어업 추진정도 △대외활동 및 주변과급 효과 △위원장 리더십 및 회원 결속력 등 각 항목 및 배점에 따라 실시하되, 제출된 자료가 없는 공동체는 활동실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평가항목별 최하점수를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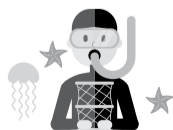
자율관리어업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의 주춧돌

우리 바다, 우리 수산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인식의 전환 자율관리어업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자율관리어업 활동

어장관리 활동



어장정소, 해적생물구제, 바위뒤이 등으로 수산자원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

자원조성 활동



체포제장 제한, 금어기 준수, 어획 능력 식각, 종자방류 등으로 자원을 관리해요.

경영개선 활동



공동어업장, 판매 방법 다양화, 가공품 개발로 공동체의 소득을 증가 시켜요.

질서유지 활동



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분쟁 해결로 공동체 간의 질서를 유지해요.

화성 백미리 '새꼬막' 본격 생산
화성시청에서 새꼬막 요리 시식 홍보행사 가져



화성 백미리어촌계에서 양식한 새꼬막 시식행사가 1월 12일 화성시청 구내식당에서 채인석 화성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경기도 화성시 백미리어촌계가 새꼬막 양식에 성공해 지난 12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화성시는 1월 12일 화성시청 구내식당에서 채인석 화성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백미리어촌계에서 양식한 새꼬막 시식행사를 가졌다.

화성시는 지역내 어장의 품종 다변화를 위해 2016년부터 우정·서신 지역 갯벌에 어린꼬막 180여톤과 바지락, 가무락, 맛조개 등 2,100여톤을 살포하고 양식어장 개발에 나선 결과 최근 새꼬막 대량양식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수도권에서도 싱싱한 새꼬막을 맛볼 수 있게 됐다.

충남근해안강망협회 '어업자 자율협약' 체결

충남근해안강망협회가 무분별한 어족 자원 남획을 막고 준법 조업을 다짐하는 '어업자 자율협약'을 1월 18일 체결했다. 이들은 규정 통수인 20통 이내 어구 사용, 포획·채취 금지 기간·제한 준수, 조업 구역 준수 등을 약속했다. 또 불법 어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1건 당 500만원) 제도와 포상금 이행보증금(1인 100만원) 예치 제도를 시행기로

했으며,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하고, 신고·고발 조치 등도 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 스스로 협약을 체결하고 준법 조업을 약속한 점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며 "타 업종도 자율협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속관리어업 신간 안내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회는 지속관리어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동체 어업인 및 관계 기관 업무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지속관리어업 유형별 교육교재 및 성공 사례집 등을 발간했다. 이들 지속관리어업 관련 도서내용을 소개한다.

<p>지속관리어업 유형별 교육교재</p> <p>해양수산부는 지속관리어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유형별 교육교재를 발간했다. 교재에는 유형별(어선 마을 양식·복합, 내수면) 지속관리어업 주요내용 및 우수사례, 공동체 등급화 및 평가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지속관리어업 추진현황 및 성과, 국내외 지속관리어업 사례도 게재해 공동체 어업인 및 관계기관 담당자의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p>	<p>우수공동체 성공사례집</p> <p>해양수산부는 2017년 평가위원회 입상 공동체와 지난해 처음 열린 우수공동체 선정대회에서 입상한 공동체의 활동사항을 담은 지속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성공사례집을 발간했다. 성공사례집에는 △신안 안향 △군산 격포 △서산 중앙 △원주 삼강 △연천내수면 △보령 삼△가제새우조망 △부안 비응도 등 11개 공동체의 성공사례 내용이 담겨있다.</p>
<p>해외 우수사례 답사 결과보고서</p> <p>한국수산회는 지속관리어업 해외 우수사례 답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속관리어업 참여공동체 지도자 및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2017년 3차례에 걸쳐 실시된 일본, 노르웨이, 대만의 우수내용을 컬러 화보를 함께 수록했다.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 및 어업활동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다.</p>	<p>자율조정협의회 운영백서</p> <p>한국수산회는 최근 5년간(2013~2017년) 자율조정협의회에서 추진한 분쟁조정 현황을 담은 운영백서를 발간했다. 운영백서에는 자율조정협의회 과제별 분쟁조정 추진내용이 상세히 수록돼 있다. 한국수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조정협의회는 지역간·업종간 분쟁 발생시 민간 조정위원들이 분쟁현장을 직접 방문, 자율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해 어업실시를 유도·촉진하는 제도이다.</p>

특별기고

지속관리어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김효연
한국지속관리어업연합 회장

2001년 출범한 지속관리어업이 올해로 18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처음 출범 당시 63개, 5천여명에 불과했던 공동체와 참여 어업인들이 어느새 1,170개, 7만2,000여명으로 눈부신 양적 성장을 이루어 냈다. 우리 지속관리어업 공동체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수산업 주역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약을 이뤄야 하며, 그 도약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 드리고 싶다.

젊은 인력 확보 노력 절실
첫째, 어촌계와 공동체의 가입 문턱을 낮춰 귀어인들과 젊은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 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귀어의 성공사례가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다. 정부 정책도 최근 몇 년 동안 귀어귀촌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어촌의 평균 연령대는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폐쇄적인 어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물론 어업인들의 수적인 증가가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다. 경쟁이 치열해져 어장관리가 소홀해지거나 마구잡이식 남획으로 어장이 파괴될 우려도 있다. 또한 기존 어업인의 입장에서 제한된 어장에 어업인이 늘어날수록 소득감소를 우려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 국내외 수산업은 단순한 1차 산업에서 벗어나 2차, 3차, 4차 산업을 융복합하여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평생 1차 산업에 종사하던 어업인들이 고령화될수록 빠른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결과적으로 공동체 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가입 문턱을 낮춰 실질적인 노동력이 되고 고부가가치 아이디어를 제공할 귀어인들과 젊은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수산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공동체 화합과 구성원간 소통이 관건

두 번째로는 어촌계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우리는 하나라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 지속관리어업 공동체 중 활동 부진으로 인해 퇴출 위기에 처한 공동체가 적지 않다. 이들 공동체는 처음부터 자율관리어업에 뜻이 없어 부실 경영을 해온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성원 간의 단결력이 약해져 상호간의 소통이 단절되다보니 서서히 위원장의 리더십이 한계에 직면하며, 부실 경영

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많은 가입 공동체 뿐 아니라 미가입 공동체 및 어촌계들이 구성원간 단결력 부족으로 마을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설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목적의식 없이 그저 해산물 채취에만 급급하다보니 구성원간 경쟁심리만 커져 단합이 되지 않고 무너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몇 년 전만해도 위원장이나 어촌계장의 리더십이 부각되고, 필요한 시기가 되면 지금은 구성원의 단결과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그 무엇도 해낼 수가 없다. 작은 배가 몇 척 없었을 때에는 각 배의 선장 리더십이 중요했다면 큰 배가 여러 척일 경우에는 선장의 리더십 뿐만 아니라 그 배의 선원들이 단결하고 협동해야만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

마지막은 앞서 말한 것에 기본이 되는 교육의 문제이다.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불방언되어야 한다. 물론 자율관리 공동체 뿐만 아니라 정부와 한국수산회, 한국어촌

어협협회, 지자체에서도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컨설팅에 따라오는 초기 목표설정 교육이나 선도마을을 방문하여 성공사례를 듣는 것이 대부분이며, 보다 전문적인 교육은 위원장이나 임원 등 리더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는 정책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촌계 및 공동체의 참여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다. 평생을 수산업에만 종사해 온 구성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촌계와 공동체의 특성상 한 걸음 더 도약하려면 전문적인 교육을 구성원들에게 지속해서 해주어야 한다.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사업도 우리 어업인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는 잘못도 크다 하겠다.

어촌계와 공동체들이 의욕을 가지고 참여하면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여긴다. 생업에 쫓겨 그럴 여유가 없다는 것은 핑계일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고 최대한 시간을 할애해 교육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 지적한 세가지 과제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노력이 선행될 때 다른 문제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2018년 달라지는 수산정책

조건불리직불금 어가당 5만원 인상 ... '어업도우미' 지원단가도 상향조정

올해부터 도서 지역 어업인들에게 지급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5만원 올라 6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그동안 어업도우미 지원단가는 일당 7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올해부터 바뀌는 수산관련 제도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조건불리 직불금 어가당 60만원 지원

어업생산성 및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육지와 거리가 8km 이상 떨어진 섬) 어업인 경우 1일 여객선 3회 이하 운항 도서) 어가를 대상으로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을 6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여야정 합의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인상이므로 한때 따라 올레에는 어가당 지원금액이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어업도우미 지원단가 인상 및 지부담 인화

사고나 질병 또는 임신 및 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해 일을 해주는 어업도우미의 지원단가는 인상하고, 어업인들의 자부담 비율은 인화한다.

작년까지 어업도우미 지원단가는 일당 7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어업도우미의 정부 부담률을 인상하고 어업인들의 자부담 비율은 30%에서 20%로 낮춘다.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시행

고령 및 취약가구에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을 신규로 실시한다. 이들 가사도우미는 어가를 방문해 취사(반찬조리),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의 지원과 가구 구성원의 건강상태 등을

돌보게 된다.

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및 경로당이 지원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일(경로당은 24일)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조건은 국비 70%, 수협 30%로, 1일 1회 1만2,000원이다.

수산업경영인 지원한도 상향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 어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2%)로 융자해주는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작년까지 단계별 지원한도가 어업인후계자 1억원, 전업경영인 2억원, 선도 우수경영인 3억원인 것이 올해부터는 어업인후계자와 전업경영인인 경우 각각 2억원, 2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정 순천만 갯벌에서 자란 '가리맛조개' 지리적 표시 등록



가리맛조개를 채취하고 있는 순천만 어업인.

순천만에서 생산되는 가리맛조개가 수산물 지리적 표시 25호 품목으로 등록됐다. 가리맛조개가 등록된 것은 전국 최초이다.

지리적 표시란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명칭·품질·특징 등이 결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공해음을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다. 이것은 지역 명칭과 품질을 함께 붙여 사용하고 배타적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는다는 의미이다.

순천시시는 2016년부터 순천만 가리맛조개의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해 여러 단계의 심의를 거쳤고, 이번에 순천만 청정갯벌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아 등록이 확정됐다.

해수부, 수산업경영인에 대출 문턱 낮춘다 어업인후계자 용자 2억까지 가능

정부가 수산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용자한도 조정과 함께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어업분야 종사 경력이 비교적 짧은 어업인후계자와 전업 경영인의 사업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용자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어업인후계자의 용자지원 최대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전업경영인의 최대한도는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수산업경영인

선정 시 지정된 전문분야에 한해서만 육성자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제한없이 수산업 전 분야에 대해 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사업 완료기한을 4개월 연장(다음연도 8월 → 다음연도 12월)하고 지원자금의 사용한도 등의 규제도 완화(집행금액의 50% 이내 → 지원한도의 50% 이내)한다.

2018년 수산업경영인 선정과 육성자금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각 지자체(시·도)별로 진행하며 해수부는 예산 한도 등을 고려해 4월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국수산회 쇼핑몰 '피쉬세일' 설맞이 선물대전

한국수산회는 설을 맞이하여 인터넷수산시장 '피쉬세일'에서 정성껏 마련한 수산물 선물세트를 시중가보다 최대 30%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

특히 금년 설에는 '청탁금지법' 개정안 공포·시행으로 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품종별, 가격대별로 분류하여 준비하였으니 고마운 분들께 '피쉬세일' 수산물 선물세트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



- ▶ 기 간 : 2018. 1. 24 ~ 2. 12
- ▶ 쇼 핑 몰 : 인터넷수산시장 피쉬세일(www.fishsale.co.kr)
- ▶ 행사내용 : 설맞이 수산물 최대 30% 할인코너 개설
- ▶ 행사품목 : 굴비, 전복, 멸치, 김, 명절선물세트 등
- ※ 문의 : 한국수산회 소비촉진팀 (☎ 1577-9480, 02-589-0633)

KMI, 2018년 해양수산 전망대회 개최



2018년 해양수산 분야의 이슈와 전망을 소개하는 '2018 해양수산 전망대회'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주최로 1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날 전망대회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 해양수산분야 관계자 1,500여명이 참석했다.

2018년 해양수산가족 신년인사회



해양수산부·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한국수산업총연합회는 1월 3일 서울 중구 세종문화회관에서 '2018년 해양수산가족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 정부와 업계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공동체 탐방 / 고흥 청석 자율관리공동체

'미역의 섬, 거금도에 자율관리어업 모델 만든다'



장현호 고흥 청석공동체 위원장



청석공동체 어업인들이 채취한 미역을 손질하고 있는 모습



청석 해초마을 전경. 청석공동체는 올해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을 받아 수산물 저온저장고를 마련하여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의 부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일시에 대량 생산되는 미역 등 해조류를 저장·공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시설은 앞으로 청석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청석공동체 장현호(62)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자율관리어업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으로 금년에 마련하게 될 해조류 저온저장고 시설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해조류양식도 이제는 생산 측면 뿐 아니라 유통·가공에 대한 비전을 마련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것을 그는 절감하고 있었다.

실례로 생미역을 그대로 공장에 납품할 경우 kg당 출하가격은 120원대에 머무는 반면 생미역을 자숙염장 후 출하하면

kg당 750원, 자숙염장미역의 줄기를 제거하고 출하하면 1,700원대로 부가가치가 꺾중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줄기 제거 및 건조가공은 저온저장시설이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청석공동체는 연간 1만2,000여톤에 이르는 생미역을 처리할 저온저장고 건립을 애타게 기다려왔다. 2013년 처음 마련한 7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로는 자체 물량을 처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청석공동체는 총 10억원에 이르는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로 올해 5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 4동을 신축하게 되면 생

미역으로 출하할 경우 15억여원에 이르는 미역 매출액이 자숙염장(45억원), 줄기 제거(61억원) 과정을 거쳐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한 청석마을은 50여명의 회원들이 갈수록 쇠퇴해 가는 어선어업을 대체하여 공동체 결성 이후 해조류 양식에 힘을 쏟았다.

거금도 동남부에 위치한 청석 어장은 해조류 양식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고품질 해조류를 생산하기 위해 ha당 19대 이하의 적정 생산시설 준수와 함께 미역의 경우 종묘입식부터 110~180일 동안 성장한 우량 염체만 채취하고, 다시

마는 3번 이상 수확 채취하는 등 품질 관리에 주력하여 이곳 해조류는 수출용 가공 원료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 참여 이후 회원간 화합을 도모해 공동체 발전을 이루었지만 앞으로 미역 등급제 도입 등 해조류 품질향상을 통한 소득증대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고흥미역다시마생산자협회를 이끌고 있는 장현호 위원장은 이제 해조류양식에도 계획적인 생산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청석공동체가 모범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역의 섬, 거금도에 자율관리어업의 모델을 만들겠다는 청석해초마을의 꿈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